

1. 지구 온난화에 따른 우리나라 기후 변화 현상(기상청)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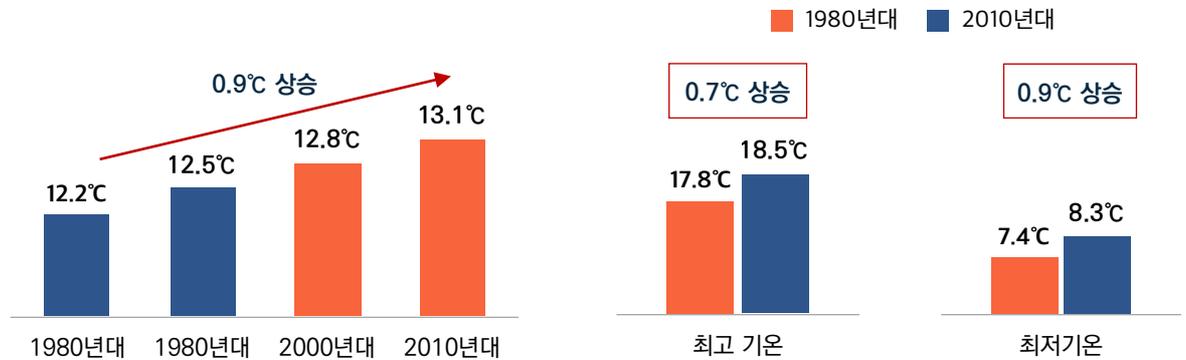


우리나라 연평균 기온, 지난 30년간 0.9도 올라!

- 지난 3월 24일 기상청이 최근 30년간의 기후 변화를 발표했는데,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이 1980년대 12.2℃에서 2010년대 13.1℃로 지난 30년간 평균 기온이 0.9℃ 상승해 온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최고 기온 역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는데, 2010년대 18.5℃로 1980년 17.8℃보다 0.7℃ 상승하였고, 최저기온은 2010년대 8.3℃로 1980년대 7.4℃보다 0.9℃ 상승하였다.
→ 기상청은 한반도에서 평균 1℃도 상승은 농작물 생산량 감소, 사람 사망 위험 증가, 나무 고사율 증가, 감염병 발생률 증가 등 생태계에 큰 변화를 초래한다고 발표했다.

[그림] 연평균 기온 (1980년대 이후 30년간 변화)

[그림] 최고기온과 최저기온 변화(1980년대 vs 2010년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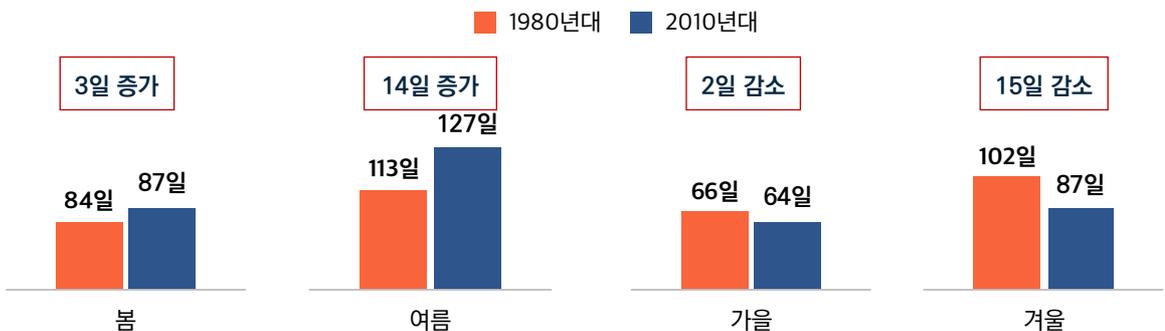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기상청, '신(新)기후 평년값이 보여준 기후 변화' 보도자료, 2021.03.25.

● 지난 30년 간 계절 길이 변화, 여름은 14일 증가, 겨울 15일 감소!

- 지난 30년간 여름은 증가, 겨울은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.
- 즉 1980년대 여름은 113일이었는데 2010년대 여름은 127일로 30년 간 14일 증가했고, 반면 겨울은 1980년대 102일이었는데, 2010년대 겨울은 87일로 무려 15일이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기후 변화로 봄/여름 길이는 늘어나고, 가을/겨울 길이는 줄어들고 있다.

[그림] 30년간 계절 길이 변화(1980년대 vs 2010년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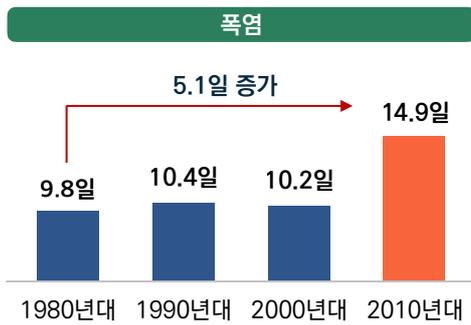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기상청, '신(新)기후 평년값이 보여준 기후 변화' 보도자료, 2021.03.25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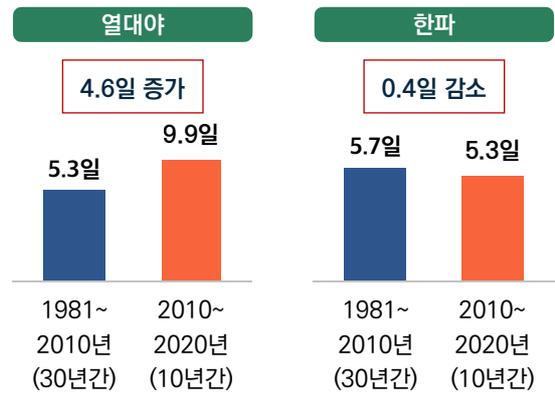
●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‘폭염, 열대야’ 일수 늘고 ‘한파’ 일수는 줄어들어!

- 1981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‘폭염’, ‘열대야’, ‘한파’ 일수를 추적하였는데, 2010년대 폭염 일수는 14.9일로 1980년대 9.8일보다 5.1일로 크게 증가하였다. 특히 2010년대 폭염 일수가 크게 증가했다.
- 2010~2020년(10년간) 열대야 일수는 9.9일로 1981~2010년(30년간) 5.3일에 비해 4.6일 증가한 반면, ‘한파’ 일수는 2010~2020년(10년간) 5.3일로 1981~2010년(30년간) 5.7일에 비해 0.4일 감소했다. 최근 10년간 그 이전보다 온난화가 심해져 더운 날은 늘고 한파는 줄어드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.

[그림] 연 평균 폭염 일수 변화
(1980년대 ~ 2010년대)



[그림] 열대야와 한파 일수 변화
(1981~2010년 vs 2010~2020년)



*자료 출처 : 기상청, ‘신(新)기후 평년값이 보여준 기후 변화’ 보도자료, 2021.03.25.